강진군, 생산 기반 강화 고품질 화훼산업 육성 '박차'

우량품종 '유통장비' 택배비 지원 등
7개 사업외 국비 활용 3개사업 병행
웰빙문화·치유농업 관심·소비 증가
"지역 농업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강진군이 관내 화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화훼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장 다변화, 품질 고급화, 유통망 확대 등을 핵심으로 침체된 농촌 화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11억7000만원을 투입해 화훼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비 보조사업인 △화훼 우량품종 지원사업 △절화용 장미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수출 화훼 유통장비 지원사업 △화훼 택배비 지원사업 등 이다.

여기에 국비를 활용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남부권의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예로부터 장미, 작약, 수국 등 고품질 화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웰빙과 정서 치유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생활문화·치유농업으로 확장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은 장미, 수국 등 지역 대표 화훼 품목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체 유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비용 절감과 더불어 소비자와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화훼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화훼산업을 강진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화훼사업은 단순한 꽃 재배를 넘어 강진 화훼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청년농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찾아가는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영암군, 어린이집·유치원 23개소

영암군이 지난 18일부터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23개소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시행 중이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기상어 손씻기 챌린지' 등 영상 시청,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손에 형광물질을 바른 아이들이 손세정 검안기인 '뷰박스'로 손 씻기 전과 후의 잔여 형광물질을 비교해 보는 눈높이 교육이 예정돼 아이들의 흥미를 끌며 위생 생활에도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교육에서 지역 구전설화를 생성형AI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를 상영한다. 지역 문화콘텐츠를 알리고 아이들이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마련된 자리다.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홍역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도 알려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군청 직원이 최근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5월14일까지 경력 3년 이하 군민

영암군이 다음달 14일까지 스마트팜인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임차인을 모집한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임차인을 모집한데는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온실)시설농업 운영 경험·기술 등을 제공해 성공 영농창업의 밑거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영암군의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은 2024년 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군서면 농어촌공사 부지 내에 1202㎡ 크기의 연동형 온실 2동 규모로 조성됐다.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은 18~45세의 영농 기반이 없고 경력 3년 이하인 영암군민 농업인이 빌릴 수 있다.

토마토를 재배할 2명을 모집하고 임대기간은 3년, 임대료는 매년 갱신된다.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 기간 안에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교육팀(061-470-6592)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4·19혁명 유공자 위문 전남서부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지난 16일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고 종채 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연합지부장 자택을 방문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위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종채 지부장은 1960년 4월19일 서울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4·19혁명에 참가하여 시위 도중 중앙청을 지나 경무대로 향하던 중 경찰관의 발포로 부상을 입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 했다.

고 지부장은 "이 땅에 4·19혁명이 일어난 지 65년이 흘렀는데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무척 고맙다"며 "4·19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져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용 지청장은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헌신하신 수많은 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국립목포해양대-국립한국해양대, 글로컬대학 선정 기원 행사

지속적인 소통 강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는 지난 16일 '2025년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MMU-KMOU 공동 유치 기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글로컬대학30' 공동 유치를 기원하고 양 대학 간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실습선(세계로호, 한바다호) 선기장과 교수진, 본부 보직자, 실습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바다호'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입항했다. 같은 날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양 대학의 실습선 실습생과 승조원이 함께한 체육대회가 열려 양 대학 실습생과 승조원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 16일 '2025년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MMU-KMOU 공동 유치 기원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제공**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글로컬대학30 유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한 바다호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글로컬대학30 공동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상W쇼 첫 공연 시작 26일 오후 8시 평화광장서

'2025 목포해상W쇼'가 한층 더 다채로운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목포시는 해상W쇼 개막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20일 밝혔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광·스포츠 도시로서의 활기를 보여줄 역동적인 무대공연과 함께 더욱 화려해진 불꽃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첫 공연은 힘찬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목포시립합창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낭만 봄 바다를 노래하다' 무대를 통해 낭만항구 목포의 감성과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그려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본공연에는 '롤린(Rollin)', '운전만 해' 등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브브걸'이 참여해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한층 더 화려하고 다채로워진 '춤추는 바다분수'와 불꽃 공연이 케이팝에 맞춰 10여 분간 연출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 당일,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사랑의교회, 해양수산청, 펠리시티몰 등 5개소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관람객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목포해상W쇼를 향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 공연도 성심껏 준비했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4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5월31일, 7월26일, 8월16일, 10월3일 총 5회의 공연을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두륜산 녹차 체험장 운영 해남군, 5월17일까지

해남군은 곡우 절기인 20일부터 두륜산 녹차 체험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두륜산 두륜미로파크 인근에 조성된 두륜산 녹차체험장에는 14만여주의 녹차 나무가 친환경으로 재배 관리되어 어린이를 비롯해 누구나 건강하게 녹차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인기이다.

이용료는 녹차밭에서 잎을 따는 채엽에 5000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조성된 덖음장을 이용하면 체험료 5000원이 부과된다.

관리사무소에서 녹차채취용 바구니를 제공받아 잎녹을 채취한 후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덖음장에서 녹차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만 덖음체험은 하루 10명 이내만 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녹차체험은 오는 5월17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두륜산 녹차는 초의선사의 정신이 어린 유서깊은 차이다.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일지암에 기거하며 동다송을 저술, 우리나라 차의 중흥기를 이끈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